

News

은행권, 신용대출 만기 연장 심사 강화해 한도 줄인다

조선일보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신용대출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유력 검토...
마이네스통장의 경우 만기 연장시 차주가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대폭 삭감할 방침... 25일 대출 총량 축소 방안 금융당국 제출 예정...

소상공인 2차대출과 중복 신청 허용된 이차보전대출 소진 '임박'

뉴스1

1차 프로그램 중 중복신청이 가능한 이차보전대출의 한도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 이미 한도를 모두 소진한 은행이 나와...
"이미 한도의 상당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린다면 추석 전에 마감(신청일 기준)될 수 있다"

금감원 업포에도...은행 점포 내달 40곳 폐쇄

매일경제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 지점 통폐합은 시중은행들의 당면 과제... 10월에만 총 40개 넘는 은행 지점이 문을 닫을 것...
금감원이 7월 은행 지점 관리에 나서자 이후 두 달간 은행들의 지점 통폐합 움직임이 주춤... 하지만 10월을 기점으로 점포 통폐합이 다시 본격화...

제2 네이버통장 상태 막는다...플랫폼 기업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서울경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에게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도 세우기로...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악사손보 외 보험사 잠재매물 많다

디지털타임스

보험사들의 매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관심은 생각보다 저조... 앞으로 더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한화손보를 비롯해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 AIA생명 등 외국계보험사도 잠재매물로 거론...

'0.3% vs 99.7%' 보험설계사 부익부빈익빈 '잡음'

데일리안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 설계사들이 눈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성장이 정체된 최근의 보험업계의 여건 상 설계사들 간 서로 남의 떡을 뺏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새내기 영업인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추가 공여한도는 중소기업에만' 비현실적 규제에...증권사 신용공여 45조 '낮잠'

한국경제

대형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쓰도록 묶어놨기 때문...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증권사 신용용자 고금리 논란...'약탈적 금융'vs'은행과 달라'

머니투데이

요지부동인 증권사 신용거래용자 고금리에 대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날선 비판... 금융당국은 규정 개선 시사...
증권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 은행과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르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